



차이나

CHINA Market Watch

마켓 워치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1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2021년 외자유치 1조 1,494억 위안(약 215조원)으로 역대 신기록 달성

-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실질 외자 사용액은 전년 대비 14.9% 증가한 1조 1,494억 위안(한화 약 215조원)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
 -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업 외자 유치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 사용액은 17.1% 증가, 이 중 첨단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0.7%, 19.2% 증가하였음. 서비스업의 외자 사용액은 16.7% 증가한 9,065억 위안(약 169조원)임
 - 한편 '일대일로' 주변국과 아세안 국가의 대중 투자액이 전년 대비 각각 29.4%, 29% 증가하고 중국 지역별 외자 사용액은 동부, 중부, 서부가 각각 14.6%, 20.5%, 14.2% 증가함
 - 상무부는 2022년에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(2021년판) 시행을 추진하고 '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'을 확대하여 현대 제조업·서비스업, 첨단기술, 에너지절감·환경보호, 저탄소 녹색성장, 디지털경제 등 신산업과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예정
 - 또한 자유무역항, 자유무역시험구, 국가급 경제개발구,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시험지역 등 플랫폼 구축을 완비하여 더 많은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수입박람회, 광저우교역회, 서비스무역교역회, 소비재박람회, 투자무역상담회 등 대형 경제·무역 전시 플랫폼을 통해 외자 유치를 강화할 예정

자료원 : 중국경제망

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201/14/t20220114_37255236.shtml

2 中, 올해 철강 생산량 감축 정책 지속 예상

- 중국 증권일보는 2022년 철강 산업은 생산량 감축, 에너지소비 총량 및 강도 통제, 저탄소 발전 등 정책으로 철강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고 철강재 수출량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함
 - 2022년 1월 13일까지 철광석2205 품목의 가격은 톤당 726위안(약 13.6만원)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41.3% 상승하였음

- 허베이강철(河钢) 관계자는 철강 수출가가 톤당 120달러 수준이면 중국내 철강업체는 일정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톤당 90달러로 하락할 경우 일부 철강업체는 손실이 발생하여 중국 내 철강자원 개발과 이용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함. 한편 철광석 가격은 2021년 최고 톤당 240달러까지 상승한 후 90달러로 하락, 현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철강 업체가 수용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음
- 정부의 조강 생산량 조정은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탄소배출 정점 도달, 탄소중립 등의 배경 하에 공업정보화부는 조강 생산량 감축을 요구하여 2021년 철강 생산량이 약 3,500만 톤 감축되었음. 업계 관계자는 조강 생산량 감축은 수입 철광석 가격 급등 통제에 유리하여 2022년에도 조강 생산량 감축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

자료원 : 증권일보

<http://www.zqrb.cn/finance/hangyedongtai/2022-01-14/A1642088172829.html>

3 中, 탄산리튬 가격 전년 대비 7배 상승...배터리 회수산업 발전 추진

- 우시(无锡)스테인리스강 전자교역센터에 따르면 배터리용 탄산리튬 현물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로 2021년 초 톤당 5만 위안(약 934만원)에서 현재 35만 위안(약 6,537원)으로 상승함
-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증가는 탄산리튬 시장 발전을 추진하며 2021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57.5% 증가한 352만 대, 2022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정책도 지속될 예정임
-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내 회수된 동력 배터리는 20만 톤 이상이고 시장규모는 100억 위안(약 1.9조원)이며 2025년에는 400억 위안(약 7.5조원)으로 성장할 전망. 2021년 하반기에 닝더스다이(宁德时代), LG에너지, 테슬라, 귀션하이테크(国轩高科) 등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였음

자료원 : 증권일보망

<http://www.zqrb.cn/finance/hangyedongtai/2022-01-13/A1642070169535.html>

4 지난해 베이징시내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 무려 900개 달해

- 베이징시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베이징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가 901개에 달했고 6개 신소비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범단지가 운영을 개시하였음
- 베이징시의 왕푸징(王府井) 등 22개의 전통 상권과 창안백화점(长安商场) 등이 '한 점포 한 정책(一店一策)'에 힘입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왕푸징 보행가는 국가급 시범 보행가로 선정되었음
- * '한 점포 한 정책'이란 베이징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정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, 백화점, 전문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임

- 현재 베이징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상업점포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만명 당 프랜차이즈 편의점(슈퍼) 보유량이 2020년 282개에서 현재 310개로 증가하였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01/10/content_25897465.htm

5 中, 개인보호장비 산업 연평균 15% 성장

- 中 시장감독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보호장비 산업이 연평균 15%의 성장률로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. 개인보호장비는 노동보호용품으로도 불리며 노동자의 생산 및 생활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통칭임
-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'개인보호장비 표준화 수준 제고 3년 행동계획(2021~2023년)'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개인보호장비 표준 시스템 건설을 완비하고 주요 제품의 표준화 수준을 제고시킬 예정
- 한편 석유, 화학공업, 천연가스, 야금 등 4대 업종의 개인보호장비 강제성 국가표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01/08/content_25897313.htm

6 더우인(抖音) 온라인마켓, 중국 국내산 상품 전년대비 판매량 6배 증가

- 중국 쇼트클립 플랫폼 더우인(抖音, 틱톡)은 '2021년 더우인 전자상거래 중국산 상품 판매 연간 보고서'를 발표하여 더우인은 중국산 브랜드의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음
- 지난해 더우인은 중국산 상품 판매를 우선시하여 플랫폼 내 중국산 상품 비중이 89%로 상승하였고 판매량은 전년 대비 667% 증가했으며, 이 중 의류·가방, 뷰티제품, 식음료품, 퍼스널케어·가정청결용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411%, 696%, 547%, 912% 급증하였음
- 한편 기업 생방송실 운영 지원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중국산 신예 브랜드와 라오쯔하오(老字号, 역사가 오래된 전통 브랜드)의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, 2021년 신예 브랜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933% 증가하였고, 200여개 라오쯔하오 브랜드가 더우인 플랫폼에 입주하였음
- 지난해 더우인 플랫폼에서 여성속옷 브랜드 UBRAS(由彼), 색조화장품 브랜드 Florasis(花西子), 로봇 브랜드 알파에그(阿尔法蛋)는 판매량이 각각 18371%, 2440%, 910% 가파르게 상승하였음

자료원 : 경제참고보

http://www.jjckb.cn/2022-01/13/c_1310421665.htm